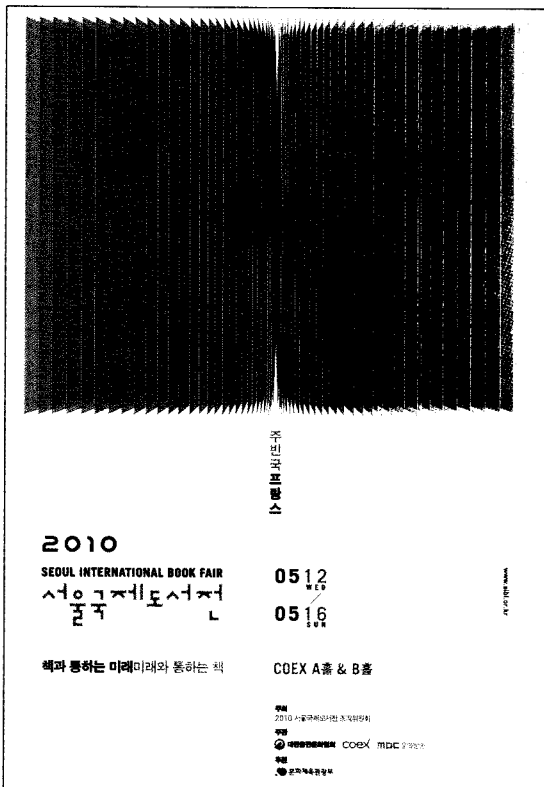


700여 출판사 저작권 교류 활발

2010 서울국제도서전 성료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후원한 '2010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책과 통하는 미래, 미래와 통하는 책'을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도서전 개막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헤르만 스프라우트 국제출판협회(IPA) 회장과 올해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프랑스의 알랑 그룬트 프랑스국제도서사무국(BIEF) 회장, 엘리자벳 로랭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출판·문화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도서전에는 국내 출판사, 서점, 출판관련단체, 저작권 에이전시 등 약 600여개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란,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해외 20여개국의 70여개 해외 출판사가 직접 참가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국제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도서전 개막 첫날(5월 12일)을 '저작권 전문가의 날'로 지정하고, 저작권 센터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며 저작권센터 내 저작권 전문위원이 상주하며 국내외 저작권 관계자들의 저작권 수출입 상담 및 통역을 지원했다. 또 저작권의 날 전일 출판사와 저작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전문 세미나와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2010 서울국제도서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미나의 전문성을 강화하였





다. 도서관협회의 '책 읽는 도시 -성과와 과제'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의 'POD 출판 세미나', '프랑스 문화계 인사 초청 강연회 및 대담'과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 출판 관계자들의 토론시간이었던 '한·불출판인세미나'가 마련됐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 고인쇄박물관(관장 안병무)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0 서울 국제도서전에 '고인쇄문화관'을 설치 운영했다.

주빈국으로 프랑스 참가

올해 주빈국은 작년 일본에 이어 프랑스가 참가했다. 주빈국 프랑스는 '한국, 프랑스를 읽다'라는 테마로 100여 개 출판사(직접참가 출판사 23개사, 위탁도서전시 출판사 80여 개사)가 1,500여 종의 다양한 도서를 전시하고, 특별전, 영화 상영, 한불 출판인 세미나 등 프랑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도서전 개막일인 5월 12일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저자와의 만남'이 마련되었으며, 13일 목요일에는 '저스트 라이크 헤븐'의 작가 마르크 레비와 팝칼럼니스트 김태훈씨의 대담이 진행돼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인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문학 카페'

'인문학 카페'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들이 인문학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동서양 비교 철학 전문가인 강신주, 고전문학 평론가 고미숙, 로자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이현

우가 각각 '동서양 2500년을 증행무진 넘나드는 신개념 철학사', '고전문학 평론가 고미숙과 함께하는 인문학 이야기', '우리시대 대중지성 로자와의 행복한 고급인문학 나눔'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도서전 현장에서 강연을 가졌다.

세계그림책 전시회 등 어린이 볼거리 다양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세계그림책전시회, 주제가 있는 그림책전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돋울 다양한 볼거리와 부대 행사도 열렸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세계 각국의 우수한



창작 그림책 작품을 전시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수준 높은 그림책 출판물을 원서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많은 독자들이 국내 창작물의 중요성과 함께 창작 그림책의 인식 변화를 꾀하고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부터 전문인에 이르기까지 언어와 문화를 떠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전시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시공간 내에 <일러스트레이터스 월>을 구성하여 국내의 현업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연출하여 관람객들의 재미와 작가들의 홍보 벽면을 기획했다. 총 128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자유로운 작품 연출로 자신의 그림 스타일과 기획 등을 일반인 및 출판 관계자들에게 선보였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